

여성 종합지에서 남성을 위한 패션전문지로 세분화 남자라서 행복하십니까?

패션잡지는 여성의 소유물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꽃미남을 고대하고, 남성들 스스로 꽃미남이길 원한다. 여자처럼 예쁘기만 하면 큰일 난다. 여기에서 남성미가 물씬 느껴져야 진정한 꽃미남의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다.

한국잡지협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잡지정보관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발행되는 4,067종 중에서 여성지는 80종을 차지하고,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는 10여 종 발간되고 있다. 매체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일 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남성을 위한 잡지가 부쩍 늘었다. 서경서적의 <MAXIM>, 서울문화사의 <ARENA KOREA>, 가야미디어의 <에스콰이어>, 두산잡지BU의 <GQ>, 디자인하우스의 <맨즈헬스> 등이 남성을 위한 대표적인 잡지들이다. 그동안에는 여성종합지에 남성의 패션이나 라이프스타일을 다룬 기사가 간간히 들어갔지만, 그것만으로는 남성들의 니즈를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간파했는지, 해외라이센스를 들여오는 등 남성을 겨냥한 잡지는 여성지 못지 않은 구독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해당업계 관계자의 귀뜸이다.

<ARENA KOREA>는 2006년 3월에 창간한 남성패션잡지다. <ARENA KOREA>는 국내 최초 남성 패션지로 '가장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콘텐츠를 보유한 남성지'라는 컨셉으로 남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남성지들과는 차별되는 콘텐츠로 'STYLE FOR MEN'이라는 아레나의 캐치플레이스를 살려 현존하는 블랙칼라 워커들에게 가장 적합한 잡지다. <MAXIM>도 영국에 본사를 두고 세계 12개국에서 발간되고 있다. 웃기고,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남자가 되는 방법이나 여자친구와 함께 봐도 될 콘텐츠로 독자들에게 선택되고 있다.

잡지의 추세가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된다는 경향을 보이며, 여성종합지에서 남성잡지로의 분기는 반가운 흐름이다. 그러나 다수의 남성잡지가 해외 라이선스여서 해외의 패션이나 라이프스타일의 트렌드를 쫓아갈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 **이진우**

취재 전문희 기자

